

2018년 2월 5일 (월) 도시와 미술연구소 제9회 연구회

발표개요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 조선인 거리의 내력과 현재
—김석범의 『화산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춘희

재일조선인 소설가인 김석범(1925-)은 오사카 출생으로 조선 문학의 장편소설 『화산도』를 일본어로 집필했다. 그는 오사카 태생이지만 정신적 고향인 제주도에 항상 관심을 가진 작가이다. 『화산도』는 제주도의 '4.3사건'을 배경으로 국가 권력으로 억압되고 탄압을 받은 제주 도민의 실상과 국가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남승지는 제주도 태생이지만 중학교 때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자란 인물로 육체적인 고향인 제주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오사카에 가족을 남겨두고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온다.

『화산도』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사카도 주요 배경이다. 소설 속의 오사카(猪飼野)는 주인공 남승지가 물리적 시간을 많이 보낸 고향이며 재일조선인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조선 식민지 시대에 실제로 많은 제주도 출신 조선인들이 고국을 떠나고 오사카에 정착한다. 그들에게 오사카는 생활의 기반이며, 동시에 잃어버린 조국을 떠올리는 공간을 상징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오사카 猪飼野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국가가 부여하는 정체성에 수용되지 않는 조선인들의 공간이다.

현재 오사카 猪飼野는 행정구역 상,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区)에 속한다. 1920년대 오사카는 히라노강(平野川)의 잦은 범람으로 개간지 개척을 위한 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때 전라도(제주도 포함)와 경상도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오사카로 이주하였고 1945년 해방 후에는 국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도망치듯 오사카로 건너온다. 당시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선으로 오사카에 많은 조선인들이 정착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오사카 이카이노라는 공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사카 猪飼野가 어째서 재일조선인들에게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소설 『화산도』에서 그려지는 猪飼野가 어떤 공간인지 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오사카 猪飼野는 재일조선인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猪飼野에서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국가라는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들여다보면 곧 그들의 삶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에 소설 속에서 오사카 이카이노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현재의 이카이노의 모습은 어떤지 고찰하려고 한다.